

축 사

선대의 공덕을 기리며 한 해를 지혜롭게 마무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한 것은 종단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일들로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거운 해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야 모두가 같지만, 우리의 삶은 힘들고 괴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선대의 가르침을 새기고 정진하는 마음을 돌아보는 것은 현실의 삶을 행복과 희망으로 이어지게 하는 깊은 의미라 하겠습니다.

우주의 만물과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기에 부처님께서서는 모든 것이 허상이고 허망하므로 애착을 가지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의 전문가들도 모든 것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에게 감사하고 의지하며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하며,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화하는 삶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청담사상 학술세미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듯이 우리 종단의 모습과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청담사상연구소는 그동안 청담스님의 사상을 학제적으로 연구하여 수많은 논문을 출간하는 결실을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 후학들의 불교연구에 큰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학술세미나의 주제인 ‘대한불교조계종 출범의 근본정신’은 우리 종단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합종단 출범 당시 중추적 역할을 하셨던 스님의 사상이 고스란히 스며있으며 생생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서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수도자이셨습니다. 한평생을 불교정화운동과 중생교화에 헌신했던 정신적 지주로서, 불교중흥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항거하고 ‘부처님법대로 살자’고 강조하시며, 불교정화에 앞장섰던 솔선수범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 본받아야 할 커다란 가르침입니다.

오늘 학술세미나를 통하여 통합종단 출범의 정신을 되새기며 불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불교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을 위해 진력을 다해주신 발표자와 청담사상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스님의 가르침을 실현해 가시는 문도 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8년 11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